■ 민주당 지도부 '광주시의회 갈등 해소 중재안' 제기

'하반기 원구성 양보안' 통할까

비주류 "2년후의 약속 어떻게 믿나"

한대표 "원 재구성은 곤란"… 타협 미지수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광주시의회 주류와 비주류 간 의장선거 무효 소송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으로 하반기 원구성 주도권을 비주류 쪽에 주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한화갑 민주당 대표, 박광태 광주시장, 유종필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광주공항 귀빈실에서 만나 갈등 치유책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와 박 시장, 유 위원장은 더 이상 광주시의회 내분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하면서 "소송 취하가 우선되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은 하반기에는 의회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도록 약속해주는 중재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류 측은 의장 선거에서 승리, 의장과 부의장 2명,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3명, 예결위원장 등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으나 2년 후 하반기 원 구성 때 이들 8명이 의회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주류 측 인사 위주로 원구성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중재안에 대해 유 위원장은 "비주류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비주류 측 분위기를 전했으나, 한 대표가 "(주류 측의) 광주시의회 독식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 다시 원 구성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시급한 갈등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중재안이 주류 측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비주류 측도 2년 후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분위기여서 타협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다.

유 위원장도 18~19일 비주류 측 일부 의원을 만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하반기 원구성 관련 약속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결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현재 유일한 수습책은 주류 쪽이 일괄 사퇴하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 뿐"이라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한 대표가 더 이상의 내분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화해를 독려하고 있고 비주류 측 일부 의원들도 중앙당에 수습책을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당 지도부와 비주류 측 인사들 상당수도 현재 의회 지도부의 몇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비주류 측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타협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주류 측의 한 시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어느 중재안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안으로 생각된다"며 "비주류 측이 이젠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시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뽑아준 시민들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분별 갯벌매립 더 이상 안된다

새만금 용도 일부만 우선지정 바람직"

이치범 환경부장관

이치범〈사진〉 환경부 장관은 "개발 위주의 갯벌(공유수면) 관리 정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조차 통제할 수 없이 개발 부서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무분별한 갯벌 매립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현재 지속가능발전위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해 갯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갯벌 매립을 막기 위한 큰 틀에서의 정책적 대원칙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빚고 있는 장항 습지 개발 문제에 제동을 걸고 새만금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정부의 갯벌매립 정책의 대전환 여부 및 향배가 주목된다.

이 장관은 새만금 사업 용도 변경 문제와 관련, "새만금 지역 전체에 대한 용도를 정하지 말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용도를 우선 지정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에 따라 쓰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계적 용도지정 입장을 강조했다.

/최진만기자 man21@

한나라 '호남의 입'

이정현씨 당직 사임

한나라당내 최장수 호남 출신 당직자인 이정현 수석 부대변인(49·사진)이 당직을 떠난다. 전남 곡성 출신으로 사레지오고와 동국대를 졸업한 이 부대변인은 민정당을 시작으로 민자당,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경상도 정당'에서 무려 23년을 보낸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구용상 전 전남지사의 권유로 민정당에 입당, 정치에 발을 디딘 이 부대변인은 지난 2년 동안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도 대여 논평에서는 독설도 마다하지 않아 열린우리당으로부터 10여차례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호남 문제와 관련 과감한 내부 비판도 서슴지 않는 등 한나라당 내 호남의 입으로도 활동, 박근혜 대표 등 당 지도부로부터 "이 부대변인처럼 고향에 대한 애착과 소신이 강한 사람은 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바다이야기 의혹 밝히기' 대책회의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책위의장단과 문광위원들을 불러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의 인·허가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및 여권 인사 연루설 등에 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언론, 권력화 넘어 정권교체 투쟁"

노대통령 "임기말 소통령·비선권력·게이트 없을 것"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사 간부와 간담회에서 "보수언론은 권력화를 넘어 아예 정권교체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향, 서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4개 신문사 논설위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언론은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넘어 언론이 정치권력화하는 수준까지 가면, 언론과 정권이 함께 침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노 대통령의 비공개 오찬 발언록을 당초 공개하지 않았으나 "18, 19일자 언론이 불확실한 전언을 확인도 하지않고 일부 내용을 왜곡 편집한 상태로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이날 주요 발언록을 공개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공개된 발언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에대해 이같이 비판하면서 "언론은 그 수단에 있어 최소한의 금도도 지키지 않고 있다. 설사 정치투쟁을 하더라도 자기의 윤리적 한계를 갖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이상의 것을 갖고 하면 안되며,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사이의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말 현상과 관련,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은 국정 시스템의 통제권을 따르고 있다"며 "소통령이나 비선권력, 게이트도 없을 것이고 적어도 정부에 대한 장악력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장관들을 챙기고 있고, 장관들은 대통령의 수준만큼 정책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인사 논란과 관련,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자격안된 사람을 보내는게 아니다"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만큼 (공기업에) 감사들을 많이 내려보낸 이유가 감사가 애정과 책임을 갖고 감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공기업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으로서는 정부의 기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내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시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성인오락실, 문화상품권인데 그것은 재임기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전제한뒤 "청와대가 할 수준은 아니고 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그것을 컨트롤 하지 못했다"며 "정책적 오류 말고는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노무현 대통령과 연합설은 정치공작"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치권 일각과 인터넷 언론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합설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내륙운하' 탐방 경유지인 충북 충주에서 "여당에서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공작의 하나"라며 '대연합설'을 부인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전 시장이 노 대통령과의 '대권 연합설' 등에 대해 이처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에 대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무성한 '설(說)'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 북 핵실험 '24시간 밀착감시'

정부와 군 당국이 지난달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유엔의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밀착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북핵 6자회담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지하 핵실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판단 아래 24시간 밀착감시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지진전문 관측기관인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내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밀착감시를 위해 군 병력의 파견 근거가 미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이례적으로 병사 6명이 최근 극비리에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감시를 위해 휴전선을 따라 적어도 수 개의 관측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지난 17일 미 언론의 보도와 관련,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결의안 통과 이후 북측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논리적 가능성 하에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시최고
사 건 2006카공 28
신청인 김귀순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56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6. 11. 27.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 : 자기앞수표
· 번 호 : 라마52261322~52261323
· 금 액 : 각금 1,000,000원(2매)
· 발 행 일 : 2006. 8. 10
· 발행지및지급지 : 전남진잠홍농협서부지소
· 최후소지인 : 김귀순
2006년 8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최형표

공시최고
사 건 2006카공 25
신청인 손승민
목포시 신흥동 1640-5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6. 11. 27.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 : 가계수표
· 번 호 : 아가13769883
· 금 액 : 금1,200,000원
· 지 급 일 : 2006. 7. 13
· 발 행 인 : 김진남
· 지 급 지 :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
· 최후소지인 : 손승민
2006년 8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최형표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10 면책
(2006하단102)파산선고
파산자 김향엽
(690810-*******)
주소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8 부영아파트 308동 1112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12 면책
(2006하단104)파산선고
파산자 김서현
(550105-*******)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 849-2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14 면책
(2006하단106)파산선고
파산자 지충웅
(470227-*******)
주소 광주 북구 신안동 790-5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16 면책
(2006하단108)파산선고
파산자 선원숙
(460625-*******)
주소 광주 남구 주월동 81-2 해태아파트 103동 807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24 면책
(2006하단116)파산선고
파산자 박복순
(610201-*******)
주소 광주 북구 삼각동 637 우미타운 101동 205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31 면책
(2006하단122)파산선고
파산자 김승재
(750228-*******)
주소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29-9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32 면책
(2006하단124)파산선고
파산자 나혜경
(690414-*******)
주소 광주 서구 금호동 809 금호5차 호반리젠시빌아파트 506동 16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36 면책
(2006하단128)파산선고
파산자 송은혜
(780615-*******)
주소 광주 동구 계림동 568-4 현대빌 4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44 면책
(2006하단136)파산선고
파산자 박병기
(600824-*******)
주소 광주 남구 방림동 46-4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48 면책
(2006하단140)파산선고
파산자 탁영미
(760210-*******)
주소 순천시 남정동 192-5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54 면책
(2006하단146)파산선고
파산자 조혜미
(810111-*******)
주소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221-1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57 면책
(2006하단150)파산선고
파산자 곽해진
(760621-*******)
주소 순천시 서면 선평리 1087 예들 마을주공아파트 109동 308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60 면책
(2006하단152)파산선고
파산자 장성미
(650119-*******)
주소 광주 남구 백운동 36-16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62 면책
(2006하단154)파산선고
파산자 장순희
(620427-*******)
주소 광양시 중동 1619-6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66 면책
(2006하단158)파산선고
파산자 박군식
(640902-*******)
주소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45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72 면책
(2006하단164)파산선고
파산자 엄은주
(740123-*******)
주소 목포시 상동 990-2 영신빌딩 4층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77 면책
(2006하단168)파산선고
파산자 정예순
(470702-*******)
주소 광주 북구 누문동 65-1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81 면책
(2006하단174)파산선고
파산자 강정북
(620415-*******)
주소 광주 북구 두암동 54 두암2차 무등파크맨션 202동 9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83 면책
(2006하단176)파산선고
파산자 김동석
(380426-*******)
주소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1-1 하남주공아파트 102동 1012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84 면책
(2006하단177)파산선고
파산자 김순남
(451227-*******)
주소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1-1 하남주공아파트 102동 1012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87 면책
(2006하단180)파산선고
파산자 정혜천
(770702-*******)
주소 목포시 상동 740 주공아파트 402동 1302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189 면책
(2006하단182)파산선고
파산자 최금숙
(541030-*******)
주소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65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성흠